

철학,경제학 기초 쌓을만큼 쌓아서 공장부터 가서 돈벌려 하는 데

Himawari

나름 제 객관적 한계를 파악할 만큼 배울만큼 배웠다 생각해서... 시대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노동으로 번돈으로 가난한 친구놈들 좀 도와주고 운동에 헌신하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어차피 고이다 못해 썩은물인 좌파판에서 비상하게 머리가 좋거나, 끈덕지게 공부에 매달릴 조건도 의지도 없는 제가 계속 서울에 살며 공부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어디로 내려가면 좋을지... 정말 무슨 스팀게임 살거 고민하면서 던지는식의 질문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추천좀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들?

희망하는 조건이라면... 적당히 뇌를 비울 수 있는 것... 하나 뿐입니다

어릴적부터 극도로 예민했었던 성격이라서요